

KCC, 오렌지로 페인트 만든다?

페인트 용제로 100% 천연물질 사용 ... 환경친화제품으로 안전성 확보

KCC(대표 고주석)가 지금까지 가솔린, 알콜 등을 사용하던 도료용제를 100% 오렌지에서 뽑은 물질로 대체한 페인트를 제품화했다.

KCC 종합연구소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오렌지로 만든 페인트는 수지도 송진과 낙엽송 등을 활용했으며 오일은 피마자기름 등을 사용해 만들었다.

이밖에 안료, 왁스 등 기능성 첨가제도 모두 천연식물 물질을 이용해 환경친화적인 도료를 선보였다.

KCC는 어린이들이 페인트를 만지거나 빨아도 해가 없으며, 더욱이 제조과정에서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페인트를 칠할 때도 기름 대신 수돗물을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푸르미>라고 이름 붙여진 신개발 페인트는 유치원, 주택, 병원, 식당, 호텔, 박물관, 전시장 등의 실내에 칠하기에 적합하다. 또 천연식물성 소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 앞으로 인테리어용 페인트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CC는 앞으로 천연재료를 활용해 놀이터용, 장난감용 페인트 등 인체 접촉이 많은 기구에 칠하는 도료도 개발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갈수록 환경친화적인 페인트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KCC는 자동차용, 건축용, 공업용 도료도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해나가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10>